

올림픽 D-14 메달 기대주 ⑩ 복싱 김정주

# 개막식 기상천외한 불꽃놀이 터진다

## 웰터급 세계 최단신 복서 순발력·파워로 '금' 도전

“세계 최단신 복서가 세계 최강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

베이징올림픽 복싱 웰터급(69kg) 국가대표 김정주(27·원주시청)의 키는 170cm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낼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동급 최단신 복서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웰터급 복서들의 평균 신장은 180cm 안팎. 지난해 시카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드미트리야스 안드라이드(20·미국)는 185cm다.

김정주가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순위 후보 안드라이드의 얼굴에 펀치를 꽂아 넣으려면 팔을 45도 각도 위쪽으로 뻗어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김정주는 아웃복서다. 흔히 단신 복서는 파고드는 스타일의 인파이터가 많고, 키가 크고 팔이 긴 선수들이 외곽으로 빙빙 도는 아웃복싱을 구사하곤 하지만 김정주는 예외다. 자신보다 10cm 이상 키가 큰 선수들 주위를 돌다가 상대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먹이를 포착한 매처럼 펀치를 날리는 게 바로 김정주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던가. 그는 웰터급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해왔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4년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같은 해 아테네올림픽에 선 조국에 8년 만의 올림픽 복싱 메달을 선사했다. 당시 준결승에서 로렌조 아라곤 아르멘테로스(쿠바)에게 10-38 판정으로 지긴 했지만 왼쪽 갈비뼈에 실금이 간 부상을 참고 싸운 김정주의 투혼은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단신이라는 단점을 메우고도 남는 장점은 순발력과 폭발적인 파워다. 힘의 근원은 몸이다. 김정주의 상체 근육은 훈련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을 잃게 할 정도로 잘 발달돼있다. 육체보다 더 뛰어난 건 머리다. 상대에 대한원을 졸업한 석사 복서 김정주는 경기중 두뇌 싸움에 능하다. 상대 허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상대 선수 가드가 내려가는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주먹을 날린다.



김정주의 메달 획득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회 첫날 대진표 추첨이 끝나기 전까지 복싱 메달 판도를 예상하는 건 무리다. 확실한 건 웰터급 정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안드라이드는 물론이고, 같은 대회 은메달리스트는 본준농(26·태국), 동메달리스트 안드레이 발라노프(32·러시아), 카를로스 수아레즈(쿠바) 등 강적이 무수하다. 하지만 김정주에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정신력이 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테러범을 치르는 동안 집에 있던 어머니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어린 정주를 키운 건 큰누나 정애(34)씨와 작은 누나 미숙(28)씨였다. 정애씨는 지난해 12월28일 아들을 낳았다. 김정주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꼭 따고 싶고 김정주는 경기중 두뇌 싸움에 능하다. 상대 허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상대 선수 가드가 내려가는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주먹을 날린다.”



### 올림픽 소식

#### 2008개 '미소 띤 얼굴' 수놓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는 2008개의 '미소 띤 얼굴'이 밤 하늘을 수놓으며 중국인의 따뜻한 정과 선의를 표시하는 등 기상천외한 불꽃놀이의 대하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화약과 폭죽의 원조인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과 꽃인 용과 모란, 그리고 오희기가 불꽃놀이의 형상들로 등장하며 고대와 현재를 잇고 시공을 초월하는 상징들도 깜짝 쇼를 벌여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는 계획. 한편 베이징올림픽조직위는 오는 8월 2일 저녁 개막식 최종 리허설 때 불꽃놀이의 일부를 선보이는데 이때 사용되는 폭죽은 정식 개막식 때의 4분의 1이지만 베이징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

#### 북 여성응원단 참가 미지수

○내달 8일 개막을 앞둔 베이징올림픽에서 경기를 제외한 불거리로 북한 여성들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이 폼하고 있지만 출연 여부는 아직 미지수.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단체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조치까지 강화되면서 북여성원단이 다른 국제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올림픽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형편.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300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거나 베이징이나 선양 등지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응원단으로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대상으로 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

#### 파월-가이 100m 전초전 무산

○25~26일 영국 런던에서 벌어질 예정이던 아사과 파월(26·자메이카)과 타이슨가이(26·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남자 100m 전초전이 무산. 타이슨가이는 24일 가이가 왼쪽 허벅지 근육통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슈퍼그랑프리 대회를 불참한다고 보도.

가이는 지난 6일 미국 대표선발전 200m 결승에서 갑작스러운 왼쪽 허벅지 근육통으로 트랙에 쓰러져 200m 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선수에게 빼앗겨 올림픽에서 100m와 400m 계주에만 출전.

#### 이란 '역도 영웅' 출전 포기

○올림픽 남자 역도 최중량급 1인자 후세인 레자자데(30·이란)가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의 꿈을 포기.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당했던 레자자데가 의료진으로부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스트레싱 받는 활동을 자제하라는 진단을 받고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24일 이란 언론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 레자자데는 남자부 최중량급(+105kg) 인상(213kg)과 용상(263kg) 합계(472kg) 세 종목 모두에서 세계신기록을 보유한 이란의 스포츠 영웅.



## 노장 그렉 노먼 “바쁘다 바빠”

### PGA 챔피언십 등 큰 대회서 초청장

제137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노익장을 과시한 그렉 노먼(53·호주·사진)에게 굵직한 대회 초청장이 쇄도하고 있다. 노먼은 강풍이 몰아친 브리티시오픈에서 젊은 선수들과 당당히 겨뤄 공동 3위에 오른 뒤 8월7일 개막하는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 초청장을 받았다. AP.

AFP 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브리티시오픈에서 선전을 펼친 노먼은 세계골프랭킹이 480위에서 166위로 경증 뛰었고 내년 4월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 초청장까지 이미 받아 놓았다. 하지만 노먼이 PGA챔피언십에 출전할지는 알 수 없다. 노먼은 이번 주에 시니어 브리티시오픈, 다음 주에 US시니어 챔피언십 등 스케줄이 꽉 차 있다. 노먼은 “초청을 해줘 큰 영광이지만 4주 연속 대회 출전 일정이 잡혀 있다”며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 샤라포바 여자선수 중 수입 '최다'

올해 2천600만달러 벌어들임  
위성미 1천200만달러 5위



전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가운데 '러시아 샤프' 마리아 샤라포바(21·러시아·사진)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가 24일 (한국시간)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샤라포바는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 3위에 올라있는 샤라포바가 올해 대회 상금과 광고 모델로 번 돈 등을 합해 2천600만달러로 1천400만달러의 소득을 올린 서리나 윌리엄스(5위·미국)를 여유있게 앞섰다고 전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테니스 선수들이 차지했다. 3위는 올해 윌버턴 우승자 비너스 윌리엄스(7위·미국)로 1천300만달러의 수입을 기록했고 4위는 현역에서 은퇴한 전 세계 1위 퀴스트 에빙(벨기에)이 1천250만달러를 벌었다. 테니스 이외 종목으로는 골프 선수 위성미(19·미국 이름)가 1천200만달러로 5위에 올랐다.

- (17:45·SBS스포츠) ▲프로야구 <LG·SK>(18:00·KBSN SPORTS), <삼성·두산>(18:20·Xports), <기아·우리>(18:30·MBCSPN), <한화·롯데>(18:10·SBS스포츠)
- ▲축구 올림픽 상대팀 평가전 <운두라스·인첸Utd>(18:40·SBS)
- ▲에비앙 마스터스 2R(21:00·SBS골프) 26일(토)
- ▲월드리그 배구 결승라운드(01:00·KBSN SPORTS)
- ▲PGA RBC 캐나다인 오픈 2R(04:00·SBS골프·SBS스포츠)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전철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b>개업·성업 안내</b> 부동산 및 매매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b>유림서점</b> 동구 계림동 광고정문영 각종참고서,교과서,지습서,이동서적,동화책 중고서적,매매 및 판매 ☎(062)223-2320	<b>조은공인중개사</b> 동구 불로동 황금마차앞 각종업무 성실히 몰바 드립니다 대표 선동명 ☎(062)225-4838	<b>맛을찾는사람들</b> 광산구 월곡동 그린현방원 뒤 보양탕,추어탕,오징어불고기 전문 대표 이미영 ☎(062)956-8020	<b>김성욱한의원</b> 남구 서동 KBC방송국 건너 대성교회거리 비염,성장클리닉,교통사고,추나요법,화형 원장 김성욱 ☎(062)675-7510	<b>광주요양병원</b> 광산구 월계동 하이미트원 연중무휴 상급 및 진료 24시간인원·간병 이사장 정일웅 ☎(062)956-5454	
<b>쉽S'미술화실</b> 북구 오창동 한진문예회오창점동양문예 미술대입시반,특기생 취미반,수강생 수시모집 ☎(010)3014-8310	<b>해뜨는집</b> 북구 용두동 양산타운앞 회무침전문 대표 전경자 ☎(062)571-5598	<b>중고타이어전문점</b> 북구 문흥동 도동고개3거리 각종중고타이어 판매,평크,재생전문 대표 김재남 ☎(062)267-6277	<b>행복이용원</b> 서구 화정동 대주@후문 염주면선 정문앞 1급 모범업소 기술분위 대표 박홍수 ☎(010)2626-9225	<b>이기영치과</b>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지하철역 1번 출구앞 보철,교정,임플란트,치식,확정전 개원 대표 이기영 ☎(062)944-2927	<b>자연산할어전문 "대기"</b> 서구 풍암동 윤리중학교 정문앞 직장인을 위한 점심특선 자연산(하모양,회진물회)5,000원 ☎(062)375-3388	<b>아사</b>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옆 한우꽃등심,한우갈비살,한우등고깃국,생태탕 병어,조리,김치,떡볶이,전통차,술안치 ☎(062)261-9000
<b>아이비(커피전문점)</b> 동구 학동 축산협동조합옆 지하 커피와 맥주가 있는곳 대표 박계심 ☎(062)223-1365	<b>자라봉국밥</b> 북구 용두동 희망병원 뒤편 맛있는국밥,순대,마침전골 대표 김해미 ☎(062)573-3311	<b>미래에셋생명위너스지점</b> 동구 금남로2가 무등B/D 4층 투자전문그룹 지점장 정우혁 ☎(062)228-0987	<b>얼린종합공구</b> 북구 각화동 동광주거리 GS주유소 맞은편 공구,엔진,수리 및 임대 대표 정완채 ☎(062)265-9723	<b>장수국밥</b>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건너 매일시장 입구 마창전골,세끼보,마리고기,마리국밥,내장국밥 순대국밥,선지국밥,콩나물국밥,계육볶음 ☎(062)945-8533	<b>아구랑홍어탕</b> 서구 화정4동 염주거리 먹자골목 동두주,홍어찜,명태찌지,단체손님환영 대표 김정일 ☎(062)385-0722	<b>운남직업소개소</b> 광산구 월곡동 LG전자빌딩 미장,조리,목수,철근,타일,용접,배관,기공,보일러 이사바,질수리,전기,수도,철거,페인트공,묘야장 ☎(062)956-3727
<b>강광진영어전문학원</b>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센터옆 기아자동차3층 파닉스(phonics) 4주무료특강(8.4~8.29) ☎(062)576-0512	<b>신광키즈아카데미</b> 남구 서2동 대성초교 육교옆 2층 7세~초등학교3학년 종일반,오후반,단체반,영어 수학,미술,컴퓨터 성격유형별 맞춤식 학습관리 ☎(062)671-5251	<b>도깨비분식</b> 동구 대의동 일동학원옆 분식식당전문 대표 박정희 ☎(062)232-9503	<b>수빈관</b> 광산구 용두동 삼성@후문 현대오일뱅크뒤 곱창,추어탕,수육 전문점 대표 최상근 ☎(062)959-6644	<b>곰분식</b> 동구 학동3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옆 편장찌개,라면,김밥,공공수,오징어전문 대표 송영숙 ☎(010)5644-5113	<b>골든공인중개사</b> 광산구 월계동 두산1차상가 105호 아파트,상가,토지,매매,임대 수시접수 공인중개사 노현의 ☎(062)973-0461	<b>B&amp;A인테리어</b> 남구 주월동 구대동고려나 백운주유소옆 실내인테리어,리모델링전문,실내건축공사 토털인테리어,벽지,장판,테코타일,욕실공사 ☎(062)653-0712